

# 현시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그 특징

고 윤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경제와 자본주의시장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 18권 369페이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은 저들이 제창하여나선 경제의 《세계화》와 정부의 자유방임적인 시장만능주의후파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허덕이고있으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자면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적지배와 략탈적수법을 잘 알고 그에 대처한 자주적인 대외금융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의 후파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 것은 대외금융전략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시기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국제적인 환률전쟁이 심화되고있는것이다.

세계금융위기의 후파로 인한 경제위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수출을 늘이는 데서 찾은 일본,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나라들과 브라질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이 자기의 환률을 떨구고 자본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쟁적으로 화폐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세계적인 환률전쟁이 벌어지고있다.

환률전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의 고유한 산물로서 독점자본의 리익을 옹호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략탈을 생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으로 된다.

현시기 2008년 미국금융위기의 후파로 인한 자본주의경제의 전반적혼란과 경쟁적인 략적완화조치로 하여 환률전쟁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2009년 3월 17일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금융위기를 겪고있는 기업들을 구출하기 위한 경제자극계획실현을 위하여 시장리자률을 낮추는 한편 1969년초이래 처음으로 3 000억 US\$의 미채무증권들을 구매하고 런이어 8 500억US\$의 저당증권을 구매함으로써 총 1조 7 500억US\$를 금융시장에 투입하였다. 결과 딸라시세는 유로에 비하여 급격히 떨어졌는데 2009년말에는 1€:1.460 4US\$로서 2월의 1€:1.278 2US\$에 비해 16%나 낮아졌다.

딸라가치저락에 대처하여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리자률인하, 시장개입의 방법으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구었다.

2009년 3월부터 4월사이에 유럽중앙은행이 1.5%였던 리자률을 1.25%로 떨군데 이어 로씨야중앙은행이 13%로부터 12.5%로, 인디아중앙은행이 5%로부터 4.75%로 각각 리자률인하조치를 취하였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의 시장개입도 활발해졌는데 잉글랜드은행은 총 50억 £분의 채권을 구매하였으며 일본중앙은행은 3월 18일 공채구매량을 1조 4 000억 ¥으로부터 1조 8 000억 ¥(182억 8천만US\$)으로 늘이였다. 스위스국립은행은 외국통화완화조치로 프랑의 가치를 떨구기 위하여 프랑을 팔것이라고 밝혔으며 스웨리에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통화완화조치를 실시하였다.

2010년 9월에 들어서면서 약세하는 딸라시세를 계속 떨구려는 미국에 대항하여 일

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환물인하 및 리자률할인정책을 실시하고 브라질, 인디아, 타이, 싱가포르 등 신흥경제국들은 경쟁적으로 금융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화폐조절과 리자률삭감을 통하여 팔라에 대한 엔강세를 막기 위하여 2010년 9월 15일 6년만에 화폐시장에 개입하여 2조¥(209억US\$)어치의 팔라를 구매하였으며 10월 5일 또다시 0.1%였던 기준리자률을 0%로 낮추고 5조¥(600억US\$)어치의 일본증권만을 구매하는 자산구매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환율을 떨구자 브라질, 인디아, 싱가포르, 타이 등 신흥경제국들은 과열된 단기자본류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였다.

환율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의 리알은 2009년 11월 4일당시 환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화폐로 되었으며 브라질의 기준리자률은 10.75%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되었다. 브라질중앙은행이 밝힌데 의하면 10월 1일-8일까지 이 나라에 류입된 팔라는 21억 8 100만US\$에 달한다. 2009년 10월 6일 브라질은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끌어들이는 과열된 단기자금의 류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브라질채권을 사는 투자가들에 대한 세금을 두배로 올리였다.

현시기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세계적범위에서 미팔라배척운동이 심화되고 통화관계의 다극화가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이다.

미국에서의 빈번한 금융위기와 세계를 위협하는 채무위기, 그로 인한 국제통화관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한 많은 나라들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미팔라를 배격하는 운동을 벌리고있다.

브라질은 2009년 10월에 남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들의 긴급회의를 주최하여 성원국들사이에 미팔라사용을 줄이고 민족화폐사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아르헨티나와의 무역결제에 민족화폐를 도입하였다. 앙골라는 2013년부터 원유 및 가스회사들이 세금을 지불하거나 아프리카지역내에서 계약을 맺을 때 미팔라가 아니라 자국통화인 관자를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모잠비끄는 모든 회사들이 수출액의 50%를 자국통화인 메리카이스로 교환하도록 하였다.

만지역나라들은 2018년까지 원유거래에서 미팔라대신 다른 화폐를 도입할데 대한 문제를 로씨야 등 여러 나라들과 진행한 회담들에서 합의하였으며 이에 합세하여 이란, 베네수엘라 등 많은 나라들이 원유대금결제에서 미팔라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란은 이미 2007년부터 원유수출액의 85%를 미팔라대신 다른 화폐로 거래하고있으며 나머지 15%에 한해서도 점차 미팔라를 제한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오늘 국제통화관계의 다극화가 무시할수 없는 경향으로 나타나고있다.

루블과 같은 민족화폐와 지역의 단일화폐, 공동화폐들이 미팔라주도의 현 국제통화체계에 전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로씨야는 루블을 지역적인 화폐로 내세울 목적밑에 독립국가협동체안에서 루블의 류통을 촉진시키는것과 함께 국내의 이름있는 투자은행들이 루블을 주요준비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있다.

아시아에서는 공동화폐의 도입, 공동은행의 창설 등이 논의되고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반미적인 9개 나라가 2010년부터 호상 무역결제에서 미팔라를 배제하고 가상통화인 《쑤끄레》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동화폐도입을 위하여 2016년에 화폐동맹과 200억US\$규모의 남아메리카개발은행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아프리카지역에서도 2010년 3월에 진행된 아프리카동맹회의에서 아프리카경제공동체를 창설하고 단일화폐를 내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한 나라에 독점적리익을 주고있는 현 국제통화제도의 불합리성에 도전하여 통화관계에서 미팔라를 배척하며 다극화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가치화폐인 금의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금가격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급격히 파동하고있는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금가격의 변화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단계는 2000년대초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금가격은 급격히 올라가는 단계에 있었다.

2002년 4월 5일에 벌써 런던금시장에서는 금가격이 308US\$/OZ.tr, 일본, 유럽, 캐나다, 남아프리카시장에서는 300US\$/OZ.tr이상의 수준에서 유지되였다. 그후 금시세는 2004년 8월 1일에는 397US\$/OZ.tr, 2005년 1월 3일에는 437US\$/OZ.tr, 2005년 9월 16일에는 460.45US\$/OZ.tr, 2006년 8월에는 652.25US\$/OZ.tr, 2007년 11월 8일에는 845.4US\$/OZ.tr에 달하여 금가격은 1980년 이래 28년만에 최고의 기록에 도달하였다.

금시세는 2008년에 들어와 급격히 올라갔는데 년초인 1월 9일에는 891.4US\$/OZ.tr로, 특히 3월 17일에는 1 030US\$/OZ.tr로서 전례없는 기록을 냈으며 그후에도 800~900US\$/OZ.tr의 수준에서 움직이고있었다. 2009년 12월초에 또다시 1 226.10US\$/OZ.tr로 뛰어올랐으며 그후 조금 떨어져 1 100~1 130US\$/OZ.tr수준에 있다가 2010년 6월에는 1 245US\$/OZ.tr로서 최고기록을 내였다. 그후 금시세는 계속 상승하여 2011년 9월에는 1 920US\$/OZ.tr, 2012년의 평균금시세는 1 754.75US\$/OZ.tr로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냈다. 이것은 2001년에 비하여 7배이상 오른것으로 된다.

둘째 단계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인데 금가격은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

2012년 10월 1 798US\$/OZ.tr로 올랐던 금시세는 2013년 6월말에 1983년 이래 처음으로 35%이상에 달하는 최대의 저하를 기록하여 최근 2년동안의 금시세가운데서 가장 낮은 1 200US\$/OZ.tr이하 계선으로까지 폭락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1 219.75US\$/OZ.tr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없었던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커다란 위험들이 나타나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시장변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금융시장운영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있는것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지위가 급속히 떨어진 반면에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협조하여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국제적인 환율전쟁의 일방으로 되고있는것도 최근시기 급속히 발전한 신흥경제국들이며 국제통화관계의 다극화에서도 이 나라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여기에서 최근시기 국제경제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브릭스나라들의 영향력이 증시되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은 모두 인구, 노동력, 령토, 자원면에서 대국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높은 경제장성속도와 생산량, 수출입규모 등에서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자기의 막강한 힘에 의거하여 미국의 독단과 전횡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디아, 로씨야, 브라질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나라들의 경제장성의 근 3~4배에 달하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오늘 신흥경제국들이 세계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7%에 이르고있다. 세

계 국내총생산에서 신흥경제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이상은 브릭스나라들의 몫이다.

2009년에 세계경제장성폭의 88%가 신흥경제국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중 45% 이상은 브릭스나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였다. 반면에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세계경제장성에 이바지한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2009년당시 세계국내총생산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의 약 80%로부터 50%로 감소되였다. 세계외화준비금의 비율에서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15%를 넘지 못하고있다.

신흥경제국들 특히 브릭스나라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는 배경에는 불합리한 현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불만과 자기들의 리권을 지키려는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와 같이 오늘 국제경제무대에서는 브릭스를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주도의 1극화의 경제구도가 허물어지고 발전도상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실현되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시장변화의 특징은 다음으로 금융시장이 국가적개입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것이다.

환률전쟁발생의 기본원인은 미국이 자기의 방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딸라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있다. 집권 5년동안에 미국의 수출을 두배로 늘이겠다고 선거공약을 한 오바마행정부는 딸라시세를 떨어구어 수출증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미국이 량적완화조치를 계속 실시하고있는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 딸라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구어 자국의 방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미국의 량적완화조치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미딸라시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들의 시세가 상승하여 자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기때문에 브라질, 인디아, 타이,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통화의 환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리자률인하정책과 자본통제조치들을 련이어 취함으로써 세계적인 환률전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국제금시장가격변화도 그 근처에는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금리조절정책이 깔려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1년간간에 리자률이 4.25%나 대폭 저하되는 저금리정책이 실시되였다. 결국 2003년 12월 1€:1.368 0US\$였던 딸라시세가 2007년 11월 25일에는 1€:1.496 6US\$까지 떨어졌다. 결국 딸라로 표시되는 금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것이다. 미련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중앙은행들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량의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한것으로 하여 인플레이위험이 초래된것도 금가격을 상승시킨 주요요인으로 되였다.

최근 금가격이 떨어지고있는것도 역시 인디아를 비롯한 주요금소비국들의 수입제한조치가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국제금융분야에서 발생하고있는 여러가지 변화에 대하여 잘 알고 새롭게 조성된 국제금융환경과 조건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